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가까운 시점에 금리 인하 적절할 수 있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두 전직 재무장관, 미 국채 리스크에 경고
- Bloomberg: 골드만삭스 전략가, “잘나가는 주식은 침체 위험 상황을 무시한다”

[미 정부 정책]

- Bloomberg: 트럼프, “애플이 1백억불 미 투자 발표한다”
- Bloomberg: 한국 정부,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시 우대 혜택 제공”
- Bloomberg: 트럼프, “일본, 포드의 F-150 대형 픽업 트럭 수입한다”

[에너지]

- WSJ: 주택용 태양광 산업, 세액 공제 끝나면서 비용 절감 모색

[보건]

- Bloomberg: 연방 보건부 장관, mRNA 백신 지원 철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Shopify, 매출 증가로 이익 급증
- WSJ: 맥도날드, 가성비 강조하며 매출 회복
- WSJ: 디즈니, 스트리밍 및 파크 수익 확대 기대... 케이블 TV 이탈에
- WSJ: 우버, 매출과 여행 수요 증가로 예약 강세 전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Kashkari Says Rate Cut May Be Appropriate in Near Term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가까운 시점에 금리 인하 적절할 수 있어”

-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인 Neel Kashkari는 현재 미 경제의 둔화로 가까운 시일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올해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 그는 경제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CNBC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기준 금리가 조만간 조정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그는 또한 관세로 인해 상당히 불확실하며 인플레에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wo Former Treasury Secretaries Issue Warning on Risks to US Treasuries 두 전직 재무장관, 미 국채 리스크에 경고

-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연방 재무장관을 역임한 두 사람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운영 방향과 워싱턴 DC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 등으로 29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시장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전 재무장관 Henry Paulson은 연방 차입과 관련해서 현재 경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6개월 내에, 6년 내에 한계에 부딪칠 모른다고 말했다.
- 반면에 그의 후임 재무장관이었던 Timothy Geithner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미국이 국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두 사람 모두 관세는 해로운 정책이라며 미 제조업체에 해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왜곡된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man Trader Says Buoyant Stocks Are Ignoring Recession Risks

골드만삭스 전략가, “잘나가는 주식은 침체 위험 상황을 무시한다”

- 골드만삭스의 관계자는 “침체 가능성이 30%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장 모멘텀에 역행하는 베팅은 거의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Paolo Schiavone는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앞을 충분히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강한 유동성과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그는 추세를 따라가는 트레이더들이 ‘핫’ 주식 자금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시장은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이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약세론자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 한마디로 시장이 경기 침체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Bloomberg 기사

[미 정부 정책]

Bloomberg: Trump, Apple to Announce Fresh \$100 Billion US Investment 트럼프, “애플이 1백억불 미 투자 발표한다”

- 트럼프는 애플이 미 국내 제조를 위해 추가로 1백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애플은 대규모의 아이폰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최근에 약속했다.
- 백악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후, 애플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제조 프로그램과 미국 내 핵심 부품의 추가적인 조립 등이 발표될 예정이

다.

- 오늘 수요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애플의 팀 쿡 또한 참석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Korea Sees Favorable Treatment in New US Levies on Chips, Pharma

한국 정부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시 우대 혜택 제공”

- 한국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있어 최고의 대우 제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 그는 국회에서 한국은 무역합의에 있어 유럽,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최혜국 수준의 국가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 그는 향후 대미투자 약속이 전략적인 부문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상 과정을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Says Japan to Import Ford's Huge F-150 Pickup Trucks

트럼프 “일본, 포드의 F-150 대형 픽업 트럭 수입한다”

- 트럼프는 일본이 포드사의 F-150 픽업 트럭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의 발언은 대미 수석 협상가인 Ryosei Akazawa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27.5%로 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로 관세를 낮추도록 하는 입장’을 확약받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무역 합의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수상은 “관세 합의 보다 이의 이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Residential Solar Industry Looks to Cut Costs as End to Tax Credits Looms

주택용 태양광 산업, 세액 공제 끝나면서 비용 절감 모색

-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에 따라 태양광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되면서 주택용 태양광 업계는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높은 판매 및 마케팅 비용에 주력하고 있다.
- 현재 고객 한 명을 추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약 1만 달러로, 전체 태양광 시스템 가격의 3분의 1에 달한다. 낮은 보급률로 인해 소비자 설득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 태양광 제조업체 Enphase는 태양광 에너지 세액 공제 종료 시 총 주거용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 또한 수요가 하락할 가능성성이 높다 분석했다.

- 미국은 저렴한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미국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세계 다른 곳보다 거의 두 배 높다.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저렴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인 상황이다.

WSJ 기사

[보건]

Bloomberg: US Health Department Pulls Back on Funding mRNA Vaccines

연방 보건부 장관, mRNA 백신 지원 철회

- 연방 보건부 장관은 RNA 기술을 이용한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 그는 구체적으로 BARDA라 불리는 5억 달러 규모의 22건의 백신 프로젝트를 끝내고 있다.
- Robert F. Kennedy Jr.은 이 같은 백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이유는 코비드와 플루 같은 호흡기 질환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hopify Profit Jumps as Merchant Sales Drive Revenue Growth

Shopify, 매출 증가로 이익 급증

- 전자상거래 플랫폼 Shopify의 2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급증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 매출 성장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고객 판매자 부문인 Merchant Solutions 매출이 약 37% 증가해 20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매출은 20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 현재 Shopify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매출 총이익은 20% 초반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WSJ 기사

WSJ: McDonald's Sales Rebound After Burger Giant Hammers Value Message

맥도날드, 가성비 강조하며 매출 회복

- 맥도날드의 2분기 매장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3.8% 성장했다.
- 레스토랑들은 고물가로 인해 외식 수요가 둔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뉴 가격 추가 인상을 피하면서 상승된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맥도날드는 올해 초 저가 메뉴 McValue를 출시하고, 7월에는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치킨랩을 재출시하며 맥도날드의 합리적인 가격을 입증했다.
- 맥도날드는 9월부터 약 500개 매장에서 새로운 음료를 출시해 젊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WSJ 기사

WSJ: Disney Forecasts Stronger Streaming, Parks Growth as Cord-Cutting Continues
디즈니, 스트리밍 및 파크 수익 확대 기대...케이블 TV 이탈에

- 디즈니가 기존 TV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트리밍 및 체험 사업 부문에서 수익 예상치를 높였다.
- 디즈니는 TV 시청률과 영화 관람율이 적어짐에 따라서 Disney+, Hulu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테마파크 및 크루즈선의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즈니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23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5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매출은 월 가의 예상과 일치했으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 Disney+는 회계연도 3분기에 18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했고, Hulu는 9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해 총 5,120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디즈니 CFO Hugh Johnston는 “극장 부문 실적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WSJ 기사

WSJ: Uber Forecasts Strong Bookings as Revenue, Trips Rise
우버, 매출과 여행 수요 증가로 예약 강세 전망

- 우버가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재무 실적을 보고했다.
- 매출은 18% 증가해 12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여행 건수는 18% 증가한 33억 건을 기록했다. 총 예약액은 17% 증가해 468억 달러를 도달했다.
- 우버는 3분기의 총 예약액이 482억 5천만 달러에서 497억 5천만 달러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475억 달러보다 높다.
- 한편, 우버는 최근 자율 주행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20개의 파트너를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중동, 아시아 전역에 걸쳐 신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WSJ 기사

[보고서]

美, '트럼프 공약' 상호관세 내일 본격 시행...세계무역질서 격변

**韓·日·EU 등 40개국에 15%...26개국엔 15% 넘는 고율 관세·최고 41%
 中·멕시코 등과 '연장전'...러·印·브라질엔 정치·외교적 압박수단
 車·철강 이어 반도체·의약품 추가 품목별 관세 예고...韓, 수출 타격 우려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교역 위축·물가상승 우려...세계성장을 잠식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 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체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전세계가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관세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